

# 총여학생회 간부학교 제안서

총여  
간부학교 수련회

발신: 제9대 총여학생회

수신: 단위여학생회, 과여학생부

일시: 96.1.23

## 들어가면서

김영삼정권의 총선구도와 맞물려 김영삼정권은 정치적 쇼를 남발하고 있고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속에서 인간해방투쟁을 간고하게 전개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9년이라는 기간동안 여학생회가 걸어온 발자취 속에서 문제점 인식과 함께 많은 반성을 했었고 여학생회 자체 특성에 맞는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고민했었습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상적 이념이 해명되지 않는 관계로 학우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대처하지 못했었고 특별자치기구로서의 여학생회 지위, 역할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부분, 간부채생산 구조의 문제점 속에서 여학생회 사업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간부들의 부재, 그리고 준비된 간부들을 내실있게 놀리지 못함으로 인해 여학생회 한 해 사업을 정리함에 있어서 성과점보다는 오류점 중심의 사고로 패배적인 총화를 해왔습니다. 이제 96학번 새내기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속에서 여학생회간부들은 어떤논리들을 가지고 새내기들과의 만남을 가려갈것인가

막막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방중이라는 시기속에서 여학생회간부에게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간부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지 위해 어렵게 간부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간부학교를 통해 여학생회 간부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면서 자기단련의 유력한 공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학우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도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체의 준비가 마련이 되어야 겠습니다.

시작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방향성

- 세로모임을 안착화시키면서 각 부서의 지위 역할을 규명하고 실정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부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을 높여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학생회와 여학생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명하고 이후 자주적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면서 여학생회 간부 혁신의 지점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기간 여학생회 사업을 진단하면서 96년 여학생운동의 진로를 모색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96년 총노선 수립과 맞물려 전개해 들어간다.

중심내용 ← 정해생산의 지점

기간 ← 총학생회의 지점, 여학생회, 간부혁신사업 (간부혁신사업), 중앙간부의 하향사업

## 1) 여성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여성문제란 무엇이고 한국사회성격속에서 여성문제는 어떻게 규정되어지는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 2) 변혁운동(청.학.운)속에서 여성운동(여학운)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학생회와 여학생회와의 관계

여성운동과 여학생운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96년여학생회 여학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봅시다

## 3) 여학생회 간부혁신의 지점은?

\*\*간부지위, 역할?

간부혁신? 간부혁신이 요구되어지는 이유

간부혁신의 지점을 내오고 여학생회 간부상을 정립해봅시다.

## 4) 95년 여학생회 사업평가, 부서별 평가속에서 나온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오류점을 극복하고 성과점을 계승하면서 세로모임별 구체적 방향성을 내읍시다.

# 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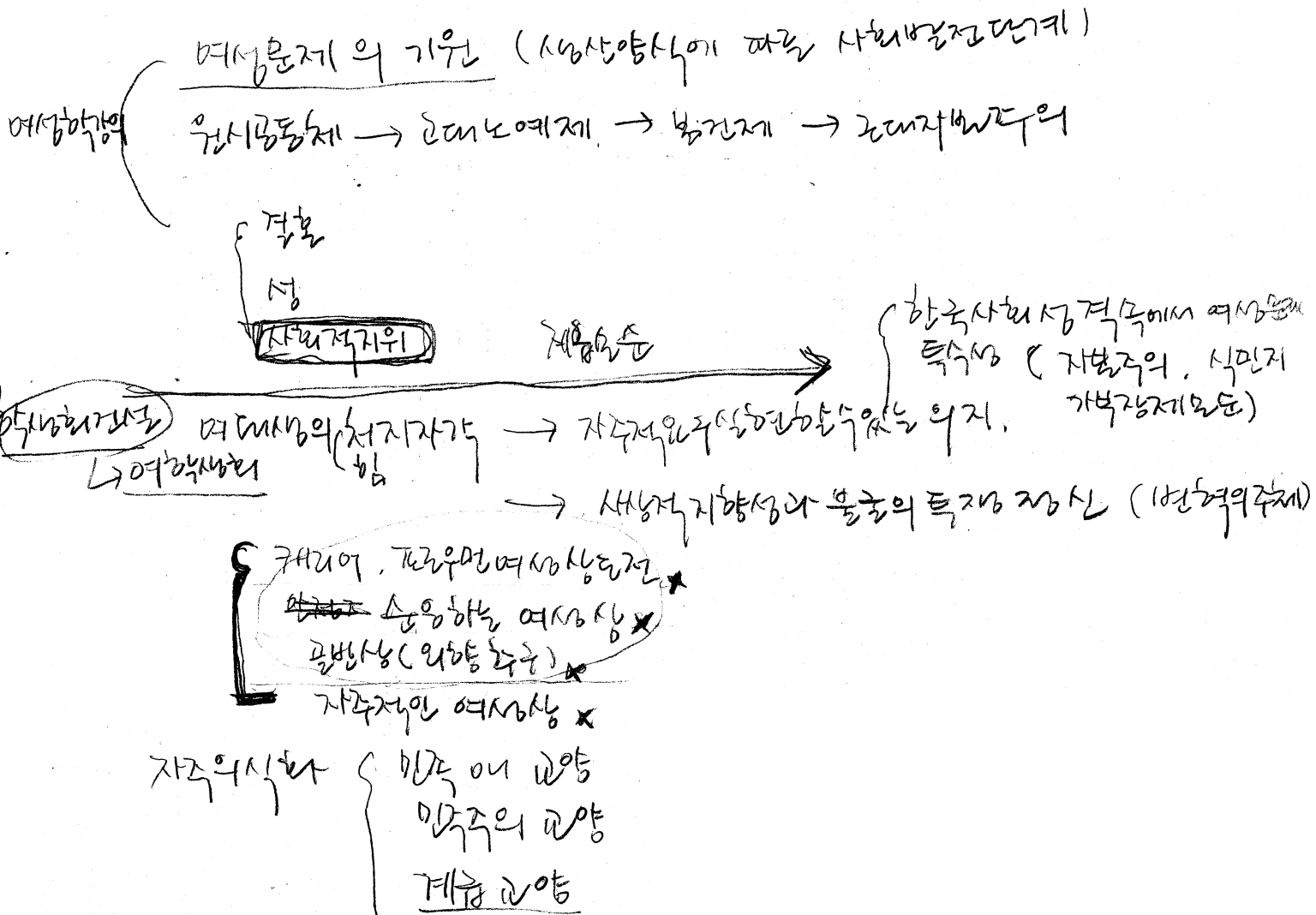
1996년 2월 2, 3, 4일

2일 : 전체강의중심, 토론, video상영

3일 : 여학생회 세로모임별 교양, 토론, 실천활동

4일 : 간부학교 총화자리, 여학일꾼 단합대회(체육대회, or  
아유회)

소요시간 : 11시 ~ 17시 (4월 제외)



# 총여신·구간부수련회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4천 여학우의 작은 혁명이 시작됩니다.

제 7 대 총 여 학생 회



## 여성해방 출사표

이제 해동 조선의 딸들이 일어섰도다  
위로는 반만년 부엌데기 어머니의 한에 서린 대업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작금 한반도 삼천오백만 어진 따님 염원에 불을 당겨  
칠천만 겨레의 영존이 좌우되는  
남녀평등 평화 민주세상 이룩함을  
여자해방 투쟁의 좌표로 삼으며  
여자가 주인되는 정치평등 살림평등 경제평등을 바탕으로  
분단 분열없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공생 공존의 지표로 손꼽는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지고  
세계 공영의 가치를 오늘에 되살려  
청사에 길이 빛날 법치의 으뜸을 두나니,  
안으로 조선여자 해방을 실현함은  
남녀분열 남북분단 청산하는 하나의 조국을 되찾는 지름길이요  
밖으로 조선남자 해방을 성취함은 전쟁폭력 없고 지배복종 없는 세계  
인민 해방의 계승임을 거듭 확신하노라

20일(물)

9:30 광천동 집결

9:30-11:30 강천사 도착

11:30-12:00 기념사진 촬영

12-2:00 점심

2-6:00 95년 총여 사업 평가

및 96년 사업계획 공유

6-7:30 저녁

7:30-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지롱

21일(나무)

9:00 기상 및 아침공기 들이키기

9-10 아침식사

10-12 강천사 둘러보기

12- 3 점심 및 짐정리 ,총화

3-5 광주 도착

5- 뒷풀이 개운하게 해보지

#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 1. 여학생의 처지와 조건

여학생의 본성으로는 인간이 가지는 속성(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속성), 청년으로써 가지는 특성(정의를 위해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 여성으로서 가지는 속성(모성에서 비롯되는 성실성과 현실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학생들의 건강한 본성은 곧잘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표출되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만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크게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그에 기반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여성은 태어났을 때부터 계집아이로서의 역할을 강요받고, 예쁘고 착한 여자, 능력보다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은 미를 미덕이라 여기는데 길들여져 왔다. 또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는 정치에서 등한시되는 여성의 지위(집안의일을 여성의 몫이라 구분지어 놓음)때문에 여성에 맞는 정책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여대생을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로 사회진출의 길이 막혀 버렸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비문화와 성의 상품화로 자신의 외적인 미모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성고용평등법 등은 아직 사문화 되었고 남성에게 유리한 법이 버젓하게 있으며, 가부장제에 기초한 성폭력 특별법, 가족법 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2. 여학생 운동이란?

위에서 나타난 여러 여성차별정책들을 타파하기 위해 첫째로 사회의 모습에 따라 여학우들이 처해 있는 처지와 조건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여학생 운동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여학우들의 처지와 조건을 이해하려는 자세이다.

둘째로는 사회 참여로 나아가기 위해 처지와 조건에 기반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힘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여성차별적인 모습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임을 확실히 하자.

### 3.그 속에서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여학생운동은 궁극적 목표를 어떠한 억압도 없는 자주적 인간의 삶을 쟁취하는 것에 두고 과정 또한 여성들의 특수한 처지와 조건으로 부터 자주적인 인간으로 자라나 해방조국속에 주체적 삶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총여학생회는 변혁운동의 큰 흐름을 밀고 가는 충추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부문계열 운동 중 유일하게 학생회를 장악하는 조직이므로 총여학생회의 정형창출은 부계운동의 발전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이에 더하여 우리가 함께 활동하는 여활동가들의 애국적인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솔직히 현 활동가 조직 안에서 애국적인 사회진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여성으로서 가지는 여러가지 사회제반의 모순들을 안고 사회에 나가려는 여활동가는 남성 동지들 보다 더 쉽게 난관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꼭 총여학생회의 역할이 아니라 여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 4.그렇다면 여학생운동의 전개시 일꾼이 가져야 할 관점과 자세

첫째,여학우들의 자주의식화에 대한 과제이다.나의 삶에 직접 영향이 있는 조국의 현실과 민중의 삶을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의 자주성 발현은 인간의 본성이다.그러나 굶이 여학우들을 자주의식화 시키고자 하는 전략전술이 따로 필요한 것인 식민지 사회 총체적 모순속에 특별히 여성들에게 더 많은 제약과 억압이 있기 때문임을 말하였다. 그러하게에 아주 낮은 수위에서 부터 여학우들을 집단화시키는 것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까지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집단의 힘으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식민지 조국과 민중의 현실을 이해하게 하는 차원에서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핵심일꾼 만들기이다.

여학생 운동은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내용으로 인해 경험과 자주

의식이 뚜렷하고 성실한 핵심일꾼의 지도가 전반적인 여학생 운동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지금까지 여학단위 일꾼육성이 힘들었다. 그것은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벗어나 여학생 일꾼은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학생 일꾼들이 필요한 것은 여학우 대중과 민중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조국의 현실에 기반한 사회분석 능력이 여학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 역사인식과 더불어 끊임없는 학습과정이 필수적이며 대학에 갓들어 온 새내기들부터 여성을 올바른 인식함으로 부터 인간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양체계가 조직적으로 필요하다.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여학일꾼들의 주체적 활동이 필요하다.

## 96학년도 상반기 사업 계획서

12월

20-21일 총여학생회 신규 간부 수련회

1월

중순 총학 확대간부 수련회

\*여성학 자료실 준비

분실물 보관함 준비(도서관,학생회관)

2월

10일 예비소집(합격차,합격엿 무료판매)

16일 귀향투쟁선포식

중순 남여대협 수련회

22일 95년 학위 수여식

26-29일 예비대학

\*학교주변 야한그림 떼기

어울림 조직화-예비대학 때 선전

예비대학 강연회 준비

소식지 준비기간

도서관 방설깔기 준비

학내 성폭력 근절방안 -학칙개정 준비기간

광주대 언론사와 연대(교내 방송국-여성영화 1주 1회 상영)

여학생 휴게실 물품비치 및 청소

3월

8일 여성의 날

중순 출범식

하순 소식지 발간

\* 여성학 자료실 선전

화장품케이스 바꾸니- 단대별 배포

각과 ,단대별 여간부 파악 및 인선

총여 확대간부 운영위(여성의 날,출범식)

각 단대 여학생 휴게실 알림잔치

어울림 활동 강화

4월

초순 모꼬지  
19일 4.19글쓰기 뽑내기 대회  
22-26일 중간고사  
하순 이동총여

- \* 재활용품 활용 홍보기간(중간고사-복사물 뒷면 사용)
- 자주여성 한마당 준비기간(설문조사)
- 소식지 준비

5월

초순 여성열사 소개전  
중순 자주여성 한마당  
하순 소식지 발간

- \* 자주여성한마당(문화제,연극제,쌍쌍요리대회,체육대회,  
강연회)

6월

10일 1학기 평가 설문조사  
중순 농활  
17-21일 기말고사  
하순 총여확대간부 수련회

7월

초순 여름농활  
- 가지촌 활동  
- 남여대협 수련회

? 에서 ! 으로 하나됨을 실천하는 사랑의 등지

## 제7기 자주학교 최종 기획안

발신: 제8대 자주적 총여학생회

수신: 각 단대 여학생회, 단대 학생회

자주학교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최종기획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서 자주학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저희 총여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우리 학우들과 같이 생활하시고 계시는 단위 일꾼들의 욕심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주학교가 애국학교와 성격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총여학생회 대중학교로서 가지는 주된 성격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간부는 여학에서 대중학교를 준비한다고 하니, 우스갯소리로 “또 여성문제 어쩌고, 성폭력이 어떻고, 또 그렇고 그런 내용이나?”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광복 50년을 맞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이듯, 식민지 조국의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억압과 착취와 예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식상하니까, 좀 쉬었다 돌아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부딪치고 깨지더라도 기어이 한 ‘성’이 살아있는 동등한 인격체로 살아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운동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듯 남성과 여성 또한 반목과 질시 보다는 서로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만이 ‘반쪽이 세상’이 아닌 완전한 한 인격체로 살아갈 것입니다.

### ★ 의 의 ★

자주학교는 애국학교와 성격을 같이하는 총여학생회 대중학교로서, 여학생운동에서 제기되는 단순한 성적 차별로서가 아니라, 현 남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여성과 남성이 모두 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이다. 또한 여대생으로, 학년 여학생으로써 참자주와 인간화의 길을 2만 학우와 고민하고 여학생운동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자리이다.

### ★ 정치적 목표 ★

1. 정신대에서 기지촌까지 현실속에 나타난 김영삼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여성적 작태를 폭로, 규탄한다.
2.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보면서 나타난 남성중심의 권력문화와 여성문제에 대한 편협한 사고가 조장한 남녀대결의 현실을 보면서 올바른 성평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3. 대학내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함께, 대학내 성폭력의 실상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4. 5월 문제에 대한 특별법, 특검제 도입의 내용들을 학우들과 같이 결의한다.

★조직적 목표★

1. 단위 여학생회의 자기 위상을 찾고 그에 맞는 간부 활동력과 내용성을 여학일꾼 스스로가 고민하고 찾게끔 한다.
2. 추상적인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벗어나 변혁운동으로써의 여성의 자기 내용성 찾기와 자주적 평등의식을 확립한다.
3. 기간 지도가 소홀했던 소모임(대중단체)과 기층(과여부)의 자활력을 가지게 한다.
4. 내실있는 실사작업(후속화작업)과 평가 총화를 잘한다.

\*\*\*준비체계\*\*\*

교장(총여회장) . . . . . 교사(단여회장)

준비위원장(총여부회장)

정책팀(공대 부회장)	선전팀(총여)	운영단(자대 부회장 )
상대 부회장		상대
영어과 여부장		사회대
행정학과 여부장		공대
영문과 여부장		자대

♣정책팀

위상:총여학생회 주관 제7기 자주학교 실무기획팀으로써 자주학교 전과정에서 학우의 의식화,조직화를 위한 내용의 기획,실무를 담당한다.

▲해야할 일

- 1)강의내용 정리
- 2)강사섭외
- 3)자료집발간
- 4)단위교양 자료준비
- 5)분임토의 형식과 내용 고민,총화서
- 6)운영단 교양

## ♣ 선전팀

### ▲ 해야 할 일

- 1) 여회 소식지-개강인사, 자주학교 일정, 학내소식 중심으로
- 2) 상정도안-반쪽이 아저씨
- 3) 기념품고민-옷, 손수건
- 4) 졸업장
- 5) 여성의거리 준비
- 6) 자주학교 선전-민주로, 후문, 화장실, 계단
- 7) 기타-접수증, 자보선전, 프랑 선전

## ♣ 운영단

위상: 자주학교 전반적인 흐름을 의의와 목표에 맞게 이끌어 나가면서, 원활한 전체적인 문화 행사 기획을 해내고 소모임을 복구하면서, 자주학교속에서 내년 여학일꾼을 준비하는 곳이다.

### ▲ 해야 할 일

- 1) 식전 문화행사 준비
- 2) 단위교양(결합)-자주학교 제기배경에서부터 준비상황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단위와 중앙이 통일적으로 인식하게끔한다.
- 3) 전체 행사보조

## ♣ 기획팀 (교장, 준비위원장, 총여, 각팀 단장)

### ▲ 해야 할 일

- 1) 전체 시나리오 작성-행사일정
- 2) 강사선정
- 3) 시상식 준비

## ☞ 일정 및 장소

때: 조국통일원년 9월 14일(목)-16일(토)

14일:입학식과 1차 강의 4:30 자대 대강당  
 15일:2차 강의 5:00 자대 대강당  
 16일:3차 강의와 졸업식 10:00 자대 대강당

접수처: 각 단대 여학생회 및 과여학생부, 단대 학생회, 총여학생회

접수비: 5000원, (옷과 자료집, 기념품 포함)

## \*\*\*준비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4	5	6	7	8	9
				접수증배포	추 석	연 휴
10	11	12	13	14	15	16
		못다핀 꽃 그림전 -16일	자료집배포	자	주 학	교

## ☼ 여성의 거리 ☼

하나

### '못다핀 꽃' 그림전

의의: 정신대 할머니의 그림을 통해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과 일본군국주의 부활음모를 저지시킨다

일정: 9월 12일 부터 16일까지

장소: 미대 앞 공터

두웅

## 반쪽이 아저씨 '만화 사진전'

의의: 여성문제를 재밌는 만화로 표현하고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반쪽이 아저씨의 만화를 통해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속의 여성문제를 느끼는 자리이다.

일정: 9월 14일 부터 16일 까지

장소: 민주로

### ▶ 강의 시나리오 ◀

#### ◆ 첫날

##### “성공한 성희롱은 처벌할 수 없나(?)”

(폭력 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무지라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

☞우조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일반 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모임에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논쟁의 주제거리가 되었었다.

우리 대학내에서도 예외없이 1심 판결이 나간 후 남학우들이 여학우들에게 장난을 치면 '3천만원'이라고 여학우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했었고, 2심 판결이 난 후로는 '고소할 테면 해봐라. 패소하면 너만 손해지!'라는 남학우들의 험박 아닌 험박(?)의 말이 사람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유행처럼 번졌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의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판결이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 사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준이 관심(?)이나 흥미로운 사건(?)에 지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남'과 '여'의 성대결로 미묘한 감정싸움으로 보여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할 것은 이것이 결코 '용감한 여성'의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 아닌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할 사회구조적 모순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의의: '우조고 성희롱 사건' 등을 통해 사회속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의 실태와 현대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킨다. 더불어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내용: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뿌리박힌 성폭력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극복방안을 찾아보자.

1. '우조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2. 더이상 침묵하고 은폐될 수 없는 성희롱-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남과 여'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학 성문화

강사: 장운경 (한국 성폭력 상담소)

#### ◆ 둘째날

##### “생존을 위한 몸부림! 이땅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가 설 자리는.....”

(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는 논리는 '주한미군'의 성욕을 인정하는 것이고, '천황군대'의 성욕을 인정하는 것이다.)

☞윤금이 그녀의 죽음을 놓고 (양키여,들어라! 모든것은 네 탓이오) 하는식의 외침은 자칫 공허한 구호가 되기 쉽다.도덕 불감증에 걸리고 아파트 평수 늘리기에 골몰하는 우리들의 잠든 넋을 두들겨 깨우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 나는 숙연한 마음으로 특히 이 나라 남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혹독한 식민지 경험을 하고도 미국의 대리전을 하러 베트남에 가서 수많은 라이파이한을 놓고, 월남 여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기생파티를 욱하면서 조금 잘살게 되었다고 태국으로 광으로 국제 매춘의 대열에 서서 비행기 표를 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뱃별' 중에서 -

의의: 정신대와 기지촌 여성의 삶을 통해서 본 제국주의 성침탈사를 짚어보고 민족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범죄사를 통한 한미행정협정개정의 정당성을 알아본다.

- 내용: 1. 제국주의 침략사를 통한 여성의 유린된 삶-정신대, 기지촌 여성  
2. 주한미군 주둔에 의한 사회 전반적으로 파생되는 부작용  
3. 한미행정협정 완전개정에서 주한미군철수까지

강사: 정 유 진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 뱃별

오전

광주의 자존심 극단 '토박이'의 5월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형상화한 작품

### 「 모란꽃 」

연극 상영

이 연극은 화염병도 아닙니다. 최루탄도 아닙니다.

그저 5월 항쟁의 중심에 온몸으로 선, 한 어느 중년 여인의 회상록입니다.

가슴아픈 사연입니다. 광주 시민의 자존심입니다.

“ 모래시계보다 감동적인 연극! ”

줄거리: - 이 현 옥 (주인공) -

95년 현재 서른 일곱 나이의 가정 주부, 보험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일곱살 난 딸이 있다. 그녀는 요즘도 정신적인 장애에 시달린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소름이 돋고 한기를 느낀다. 5월만 되면 입안이 험고 잠을 설친다. 잠을 자다가 남편의 뺨을 때리기도 한다. 참다못해 정신병원을 찾아가나 소용이 없다. 어느 심리학과 교수를 찾아가 심리검사를 받는다. 그녀는 5월 광주사건 당시의 충격과 그 후의 조사과정중 신체적·정신적 상처로 인해 심한 심리 질환을 겪고 있음이 밝혀진다. 교수는 그녀에게 심리극 참여를 유도하여 5월 사건과 그 충격을 회상, 재현케 한다.

점심식사후

“식민지 여성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림 발표회

자기 자신의 아픈 과거를 선뜻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다. 여기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 일어난 여성들이 있다. 과거에 그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숨어살아야 했고,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오늘에는 '나라 망신 다 시키고,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걸림돌'로 김03정권의 목에 걸린 가시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믿는다.물이 아래로 흐르듯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하고,일본의 역사책이 새롭게 쓰여질 날이 오고야 말거라고..... 오늘도 그들은 아원 몸을 이끌고 어디에선가 투쟁하고 있다. ☹

의의:일본 군국주의 음모 부활 저지와 강간당한 민족의 누명을 벗기기위해 오늘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싸우고있는 할머니들과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의 가치관을 만들어 보자

## ■ 전체 행사일정 ■

-사회자:총여 사무국장

### ● 9월 14일 목요일

4:30 전체 집결

5:00 단위 점검

5:30 입학식

애국의례

교장 인사말

총학생회장 인사말

준비위원장 인사-자주학교 구울

신입생 다짐글

담임과 반소개

축하공연

6:10 강의.질의 응답

8:00 분임 토의

### ● 9월 15일 금요일

5:00 집결

5:30 문화 행사

6:00 강의.질의 응답

8:00 분임 토의

### ● 9월 16일 토요일

10:00 집결

10:30 문화 행사

11:00 모란꽃 상영

01:00 총학생회장님의 5월 투쟁 기조

01:40 점심시간 및 단위 토론

02:10 노래패 공연

02:30 정신대 할머니 그림 발표회 및 질문

03:30 졸업식

모범단위 시상

모범생 시상식

폐회사

도전하는 여성, 저항하는 여성  
민족조선 제8대 총여학생회

■ 제 1 차 ■

[총여학생회 확대 운영위 자료집]

도전하는 여성 저항하는 여성

제 8 대 자 주 적 총 여 학 생 회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무지와 잘못은 용서받는다.  
그러나 또한 너희의 잘못은  
여자이기에  
용서받는다는 이유로 길들여진 것이다.  
이 시대의 여자는  
이시대가 만든것일 뿐이다.  
너희가 차별당하는 것만큼이나  
너희와 동시대의 남자들도 또한  
억압당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 배워야 할 것이다.  
전정으로 세계사의 반을  
너희가 배워야 하는 법을  
누가 너희를 인간 이전의 여자로만 만들었는지  
네가 정말로 인간이기 위해서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땅의 젊은 여성들이여  
이제 스무살의 어디쯤에 서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

# 식 순

## 문화행사

### 1부: 대회사

- 1) 개회선언
- 2) 애국의례
- 3) 대회사

연대사(남여대협의장)

축사(총회장)

### 2부: 본회의

#### 1) 서기임명

- 2) 정족수 확인
- 3) 안건 채택 및 회순 통과
- 4) 안건 심의

-총여회장 권한대행에 관한 심의의결

-총여학생회 95년 총노선에 관한 심의의결

-회칙개정에 위한 소위원회구성에 관한 심의의결

-기타 심의의결

#### 5) 특별안건-결의문 채택

#### 6) 자유발언대

#### 7) 토론

#### 8)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내용 의결

#### 9) 폐회선언

### 3부: 세로모임별 모임

## <1> 들어가며

일제의 침략, 미국의 한반도 감점과 조국분단, 그리고 연속 정권에 의한 한반도의 모순이 더해지며 억압과 수탈을 당하는 이땅의 민중들, 그중에서 특히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성차별이 고도로 침체화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2천만 민중여성들의 문제는 지금에 와서 더 고질화되고 있습니다.

장고한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여성억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지 않더라도 여성들은 하나의 왜곡된 사회구조속에서 온갖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성은 하나의 상품적 가치를 띄게 될뿐이며, 역사속에서 왜곡되고 변질되어온 성의식은 여성을 더욱 비인간화 하고 억압의 굴레를 강고하게 다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조국분단에 의해 자주적 발전이 차단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제국주의에 의한 이땅 여성들의 성침탈이 자행되고 현정권에 의해 보조·육성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3차 서비스 산업(향락산업)의 비대화로 경제적 절대빈곤에서 오는 전통형 매춘과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파쇼 집단의 여성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점점 노골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세와 자본, 힘의 논리에 의한 여성에 대한 차별화 논리와 강압정책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그 본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지금의 시기를 정리해 봅시다.

- 가)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여성문제의 가장 노골화된 현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반봉건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순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나) 여성의 평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되었다는 명분아래 여성차별은 비공식적으로 더욱 교묘하게 은폐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에서의 여성의 응모제한이 남녀고용특별법에 저촉되지 않고 단지 여여차별이라는 검찰의 논리.)

다) 언론과 매체를 통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의존성, 개별성을 부각시키며 여성의 능력을 비하하고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편견과 남성중심의 이중적 성인식, 직장은 여성에게 부차적인 것이라는 인식등이 구성원들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깊게 내면화된 남성지배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라) '페미니즘'의 왜곡과 '컴플렉스' 유포를 통한 성의 상품화와 대결의 논리가 팽배하고 그속에서 2천만 민중여성들의 자주성이 억압당하고 있다.

마) 하지만 김영삼 정권의 반여성정책과 남녀분열책동속에서도 민중여성들의 자주성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고 지자체 선거와 빼이징 세계 여성대회를 두고 여성들의 힘이 한곳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제 식민지 진보적 여성이 어떠한 움직임과 내용으로 살아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역사적 발전속에서 결코 여성은 약자나 피동적 주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여학생(여성)운동을 하는 일꾼들은 자기 대중을 믿고 변혁운동을 지향하지 못하고 단지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하소연을 하는데 불과하게 됩니다. 변혁운동이 자주성을 억압당하는 인간들이 주인주체로 서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주체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도 힘차게 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87년, 88년 학원 자주화 투쟁과정속에서 힘있게 출발했던 여학생회가 이제 얼마만큼 학우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그들의 직접적인 참여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느냐는 바로 여학일꾼들의 주체혁신에 있습니다.

많은 여학생회 일꾼들이나 다른 간부들이 '여학생운동의 역사가 없다. '여학생운동론'이 부재하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여학생운동은 분명히 선배들의 살아있는 투쟁의 역사였고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되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여학생운동은 자기뿌리를 명확히 찾고 단절적이고 사안중심, 그리고 상층 중심의 활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운동을 사상운동으로 조직운동으로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되어집니다.

“

**여학생회 운동은**

**진정 사람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여학일꾼 여러분!**

**여학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항상 간직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다.**

”

## <2> 총적좌표

“부문계열운동,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선차화하고 여학우 대중과 과여부, 소모임의 기층에 기반한 사업의 내용을 마련하여 여학일꾼 주체혁신의 상을 통해 김03정권 타도와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한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미래를 열어가자!”

### <해설>

부문계열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여학운동을 벌여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 자기사업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전체사업도 주동적으로 받아안아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명확하게 여학우 대중으로부터 의거하지 못하고 전체속에서 부문이 나아가야 할 핵심적 고 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부일꾼들에서의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는데 이는 기간 여학생회 대중교양사업의 성과가 간부들속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았다는 큰 반성입니다. 함께 일하는 간부도 교양하지 못하고 어찌 학우대중에 의거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여학에 대한 간부들의 물이해가 많음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안을 좀더 주체에서부터 찾는 노력을 기했으면 합니다. 많은 여활가들의 역량이 여학생운동으로 묶여지지 못하고 나의 조직으로 받아안지 못했던 부분들도 받아안아 여학일꾼들의 조직생활 안착화와 혁신성과 낙관성으로 무장하기 위한 간부정책사업을 힘있게 벌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5년은

- 첫째, 특별자치기구, 부문계열운동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점검해 나가는 시기여야 합니다.
- 둘째, 전체여학일꾼들의 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적 여학생상을 마련하여 혁명적이고 민중적인 여학생회 사업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 셋째, 명확한 자기대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모임, 과여부의 활동력을 높여내어 조직적 토대를 강고히 해야 합니다.
- 넷째, 김영삼 정권퇴진과 통일조국 건설의 명확한 목표를 실정과 조건에 맞게 다각도로 가져가고 민족대단결의 기치하에 남과 여 차별화 논리를 분 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1. 사상노선

“인간중심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기삶의 세계의 주인으로 일떠서는 주체적 여성상 마련으로 여성의 긍정성에 기반해 민족대단결로 일떠서자.”

### <해설>

사상노선을 수립하며 우리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여학생운동을 사상운동으로 정립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우리일꾼들의 사상적 근거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운동의 뿌리를 여성의 자주성 구현과 진정한 인간을 향한 사상통일이라는 점에서부터 찾고자 했습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세우는데서부터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기본 사상이 시작된다는 생각과 기간 여학생운동을 패배적으로 총화해내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여학생의 긍정성을 찾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95년의 시기적 조건속에서 명확히 틀어줘야 할 중심내용으로 사상노선을 수립하여 봅니다.

첫째, 역사와 사회, 학원의 주인으로써의 주체적인 여성상을 마련하여 식민지 진보적 청년여성의 역할을 규명하자.

둘째, 여성에 대한 편협한 사고였던 개별성과 의존성을 떨쳐내고 집단주의 공동체의식으로 무장하자.

셋째, 여성에 대한 승리적 관점으로써의 여성의 긍정성을 확보하자.

넷째, 김영삼정권의 반여성정책과 남녀의 분열책동, 제국주의의 성침탈을 분쇄할 수 있는 민중적 민족적인 여성해방관으로 무장하자.

### <구체적 내용>

1) 여학생은 청년학생으로서 정의감이 강하고 선진사상과 시대추세에 민감하여 민족적 각성이 빠르고 높은 조직성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이기에 정서적이고 다정다감하여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주위사람의 고통에 민감하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여학생의 특성을 왜곡하고 이용하는 사회와 학원에서의 봉건적 생활풍토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와 사회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체의 혁신성으로 객관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 여성상을 확산, 전파시켜야 한다.

2) 이전의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 남녀의 차별성이 여성운동의 발전을 규정한다는 ML주의 여성운동론에서 일대도약하여 그 운동을 책임지는 실주체, 즉, 여성대중의 조직화된 힘이 운동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밝혀 집단주의, 공동체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3) 여학생운동의 사상노선을 준비하면 왜 '여성의 긍정성'이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여성의 긍정성'무엇이고 그것을 얼마나 추상적인 것인가를 많은 학우들이 제기합니다. 이는 '여성다움'과는 다른 차별성을 띤 과학적인 개념이고 사회화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역사속에서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밝히고 그들의 자주성이 어떻게 고양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문제이며 여학우 대중이 왜 존재적인 자각이 크고 책임의식이 높은가는 단지 억압받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본래의 건강한 속성에서 기인함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그들은 일반대중과는 다르게 이중삼중의 침해한 사회모순에 대한 자각이 빠르고 투쟁의 간고성을 가집니다.

4) 95년 주객관적으로 조성되어진 정세는 조국의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속에서 무엇보다도 남북해외 7천만 겨례의 조국통일 투쟁을 위한 구체적 노력만이 통일에 결정적기여를 할수 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문민파소정권인 김영삼 정권의 사대매국성과 반여성정책 남여분열 책동을 분쇄하고 진정한 민족자주화의 길에 일떠설수 있도록 민족 단결 의식으로 무장한다.



### 3. 조직 노선

“간부혁신의 기치 높이 들고 기층과 단위의 자립자활력에 기초하여 조직적 토대를 강고히 하고 재생산구조를 안착화하여 여학생운동의 활로를 개척하자”

#### <해설>

여학생운동은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이며 여학우의 자주적 지향과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학우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 바로 여학생회이다.

이러한 여학생회가 여학우들 속에 튼튼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해와 요구는 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모아지기에 8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총여 중앙에 '과여부장과 특별 소위원회'를 건설하였습니다.

기층조직 강화와, 소모임의 활성화만이 대중으로부터 실현되고 보위받는 여학생회가 될것입니다.

다음 간부재생산과 관련하여 간부정책 사업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준비된 간부', '실천 속에서 단련된 간부'가 없는것이 우리 여학생운동의 현주소입니다.

'간부 조직화'사업이 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안정적인 간부재생산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회 간부들이 이 후 전망을 내는데 있어 개별적 단기적으로 고민을 내오고 있는데 95년 조직부 총노선에서는 '간부들이 단련 받을 수 있는 계기와 장'을 조직사업에의 첫번째로 내세워야 겠습니다.

여학생회의 조직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주체의 혁신과 명확한 의식화.조직화 사업에 있습니다.

첫째,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간부정책 사업을 병행해나가 신념과 낙관에 차있는 여학일꾼상을 마련하고 핵심발굴 육성사업에 박차를 가하자.

둘째, 여학생회의 전문성인 여성문제연구반을 중심으로 소모임의 활동을 확산시키고 과여부의 대중결합력을 높여내어 대중의 참여와 요구에 기반한 주체적 여학운동을 전개하자!

셋째, 체계와 부서의 대오속에서 여회에 대한 인식과 여학간부들의 조직생활

의 문제점에 있어 상호보완적 측면을 명확히 하고 사상혁신에 기반한  
여회사업을 벌여가자

<구체적 내용>

1) 간부정책 사업을 강화하자

기간 여학생회를 평가할때 제일 먼저 여학일꾼들에 대한 문제가 빠지지않았습  
니다. 무엇보다 조직의 얼굴은 사람이고 그들의 조직생활에의하여 평가받으니  
까요. 이제 올바른 학우증심의 이념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집행력과 정책력을 강화하여 사업, 학습, 투쟁의 전반 생  
활에서의 장기적으로 간부들의 혁신성을 높여내어 모범을 창출, 전파하는 것입  
니다. (예: 힘다짐대회 개최, 1간부 1개과 자기 사업 가지기)

2)기층(과여부, 소모임)과 단위의 자립자활력을 드높이자

실사구시한 세로모임의 운영으로 기층에서 총여중앙까지의 점검총화를 내실있  
게 새들어가고 핵심의 지위와 역할을 높혀낸다.

과여부와 소모임에 대한 올바른 지도의 정형을 창출하여 기층과 단위의 정책  
력을 높여낸다.

(예: 총여운영위 강화, 여부장 대회, 세로모임 강화)

### 3. 대중노선

“자주적 투쟁관은 모든 투쟁의 주인 주체는 학우대중이라는 사상적 원칙과  
입장을 명확히 견지하는 투쟁관을 말한다.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간부  
들은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중에게서 찾고, 학우대중의 준비정도와 의식  
를, 정서에서 찾고 이에 의거해 투쟁의 수준과 형태를 내어오고 투쟁의  
성과를 대중들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투쟁의 원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자주적 대중관으로 무장하자.

둘째, 모든 사업에서 승리적 총화와 후속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째, 모든 사업을 대중의식화 조직화를 기본으로 하고 창조적이고 세련된 사

업작품으로 정세를 주동적으로 가져간다.

네째, 기층의 자립자활력을 높일 것을 기본으로 일회성사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다섯째, 총여학생회 모든 사업은 6천 여학우와 2만 민족조선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학우들이 주인주체가 되는 사업만을 고집한다.

#### <구체적 사업>

1)윤금이씨 살해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을 파기하고 더 이상 미군에 의해 우리 순결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한미군 철수 투쟁과 대중적인 반미의식 고양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것입니다.

-->윤금이씨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함께 아파하고 기지촌의 문제는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만 해결된다는 합의를 여학우들 속에서 대중적으로 해낸다.

-->생활 문화 혁신 : 좋은 비디오 보기, 우리 음료 마시기, 우리옷 선보이기, 청바지 덜입기 등의 상시적으로 펼쳤을 때만이 성과점을 거둘수 있습니다.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 투쟁을 조직화하고 여회 속에서 장기수 할아버지 후원회를 조직화하여 정기적 만남의 장을 갖는다.

#### 2)조국통일 투쟁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 통일의 기본전제인 민족 대단결 의식을 고취시키고 학우들과 같이 통일 방안을 합의 확산시킨다.

-->조국 통일 원년을 맞이하여 대중적인 장을 마련한다.(통일 오작교, 북한 영화상영)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 3)반파쇼 민주화 투쟁

-->김영삼 정권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민주대개혁안(10대 여성정책)을 요구해 들어간다.

-->1995년 6월 지방 자치 선거에서 여성의 의석이 2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한다.

-->광주, 전남지역 여성문제 특별위원회와 남여협과의 연대투쟁.

#### 4)학원자주화 투쟁

-->여성학 강의에 대한 대중적 평가:1학기에 교수공개강의를 실시하여 강의

의 대중적 평가를 학우들과 함께하고, 2학기에 여성학강의 교수공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 강좌

-->여학우 복지 문제: 본관 3층에 있는 여학생 독서실, 양호실, 휴게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폭력 추방기간 마련

-->보기에도 낯뜨거운 화장실 문화 개선

-->작은 선전 생활화: 후문에 있는 여학 지정게시판을 통하여 여성문제, 정치정세, 학자를 2만 학우의 여론광장등 일상적인 선전을 생활화한다.

# 결 의 문

교육은 사회라는 하나의 구조물을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교육의 부실공사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민족의 염원을 받아안고 인간 중심, 민족자주 교육의 이념아래 7만 2천여 여 민중의 공한 톨. 쌀 한말이 모여서 명실 상부한 민족대학, 도민대학으로 터를 잡아 49년 재 깊은 뿌리내리고 있다.

동안 박철웅이라는 집단에 의해 설립자 명의의 왜곡과 학교당국과의 파행적 운영으로 민족대학으로서의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박철웅집단의 사설 왕국으로 전락되었다.

87년, 88년 113일간의 투쟁. 자랑찬 1.8 항쟁의 길고도 험한 투쟁으로 박철웅을 학원에서 쫓아내고 민족대학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박철웅 집단은 1.8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무시한채 계속적인 학원 재복귀 음모를 저질렀으며 '임원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법적 대응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호남 민중들과 20만 대자협 성원들에 의해 행정 소송의 승리로 귀결디게 되고 이제 박철웅이는 법적으로도 자기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는 행정소송 승리로 민족대학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에 덧붙여 법인의 올바른 정상화를 통해 재단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관개정 작업을 통해 민족 조선의 문명을 책임질 민선정이사 추대, 박철웅 집단의 재산을 환수하며 민족대학 건설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려 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7천 여학우는 민족 조선의 역사성과 민족대학으로 가기위해 이러한 당면 제기된 투쟁을 힘차게 벌려 나갈 것을 결의한다.

조국 통일원년 3월 15일

민족조선 총여학생회 확대운영위(건)

# 결 의 문

88년 학원 자주화 투쟁속에서 ,92년 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던 윤금이 언니의 투쟁에도 ,보은 진관이의 눈물어린 투쟁에도 ,94년 광폭하게 휘몰아치던 공안탄압 속에서도 자랑스런 민족조선 6천여학우는 함께 숨쉬고 함께 투쟁하며 숨가쁘게 총여학생회 8년의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

95년은 민족사의 대 전환기적 시기입니다.

은 세계에 자주,평화의 순풍이 불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고 ,외세의 수입개방 압력에 어떠한 방패막도 없이 몰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7천만 겨레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건설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문민정권 김영삼정권은 민간 통일운동을 창구단일화로 차단하고 4천만 민중의 통일 염원을 정권다지기에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20년과 맞먹는 김영삼정권의 2년은 이제 총체적 파산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삼정부와 민자당의 지방선거와 관련된 법률안 개정과 날치기 처리 음모는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예상한 비열한 작태입니다. 기초의회와 단체장에 대한 당의 공천 배제 문제는 온갖 부정 부패, 대형 사고 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치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 여학일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아침 조회시간에 신문을 읽고 토론을 전개합니다.

여학일꾼은 정치정세에 밀접히 대처하면서 학우들과의 만남을 상시적으로 합니다.

둘. 가장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학우들과 함께 합의 하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겠습니다.

셋.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자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민주후보 당선을 위해 여학일꾼 한사람 한사람이 선전선동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조국 통일 원년 3월 15일

민족조선 총여학생회 확대운영위(건)

매

모